

동시다발적인 성령의 역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방송으로 '2019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여한 이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은 행복한 소식.

'팔복' 시리즈

주를 위해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세계적인 축제

28개국에서 참석한 '2019 만민하계수련회', 그 은혜의 현장에 함께 한 해외 주의 종 및 성도들의 고백.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50년간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게 되고 안면신경 마비와 척추디스크를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03호 2019년 8월 2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권능 체험하다!

실시간으로 GCN방송, 인터넷, 유튜브 통해 '만민하계수련회' 동참해



기사와 표적, 권능이 넘치는 '만민하계수련회'는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 해외 지교회뿐 아니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많은 사람이 GCN방송,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 저녁,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린 '2019 만민하계수련회' 첫날 설교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강사인 이수진 목사가 기도했을 때, 현장에서는 물론 해외 곳곳에서도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인도에서는 'GCNTV HINDI' 생방송을 우연히 접한 키란 넬슨 타고회 성도(여, 23세)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의 치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손수건 기도를 들려주자 남편이 소생하여 퇴원하게 됐다는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또한 안면신경 마비로 고통받던 미나시스 성도(여, 46세)는 세상 의학으로 치료받을 수 없었는데 기도받은 뒤 눈을 깜빡이는 증상도 사라지고 작아졌던 눈의 크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4면 참조). 이외에도 아만 쿠마 성도(남, 26세)는 11년 된 잇몸 통증을, 로시니 성도(여, 15세)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치료받는 등 많은 역사가 나타났다.

콜롬비아에서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참석해 기도받은 뒤 에스메랄다 모레노 성도(여, 46세)가 척추디스크를 치료받아 수술이 필요 없게 됐고(4면 참조), 룯 삼브라노 성도(여, 75세)는 호흡 곤란과 등 통증이, 메리 벨로사 성도(여, 48세)는 심한 요통이, 루비 우르파도 성도(여, 53세)는 가슴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했다.

중미의 온두라스에서는 블랑카 끌라로스 성도(여, 45세)가 1년 동안 고생했던

알레르기성 기침과 두통이 사라졌으며, 이시스 빠스 성도(여, 23세)는 하루 전부터 애완견이 코피를 흘려 걱정이 되었는데 기도받은 뒤 코피가 멈추는 신기한 체험을 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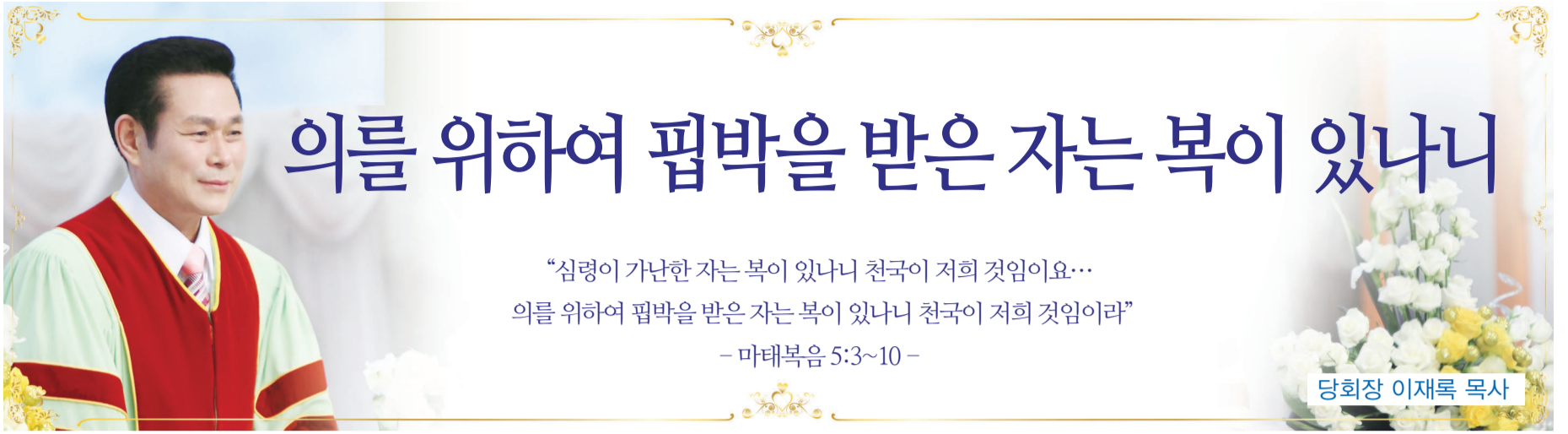
아프리카 케냐의 루드아키니 성도(여, 22세)는 1년 전부터 양팔이 너무나 차갑고 감각이 없었는데, 수련회를 앞두고 담임 정명호 목사의 손수건 기도로 왼팔을 치료받았으며, 이번 수련회 때에는 오른팔까지 치료받아 감각이 되살아나고 통증도 사라졌다. 줄리엣 은제리 성도(여, 28세)는 들리지 않던 오른쪽 귀가 들리게 되었으며, 속 쓰림과 가슴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동참한 골로 브리짓 성도(여, 56세)는 수년 된 왼쪽 손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딸의 무릎관절염을 치료받았고, 까또 보송고 성도(여, 40세)는

브라질에 사는 사촌이 수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기도받은 뒤 사촌에게 전화가 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몽골에서 동참한 바야르자르갈 성도(남, 36세)는 독거미에 물려 다리가 붓고 잘 걷지 못해 병원에서는 절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련회 첫날 환자기도를 받은 뒤 부기가 빠지고 통증이 사라졌다. 우르차이흐 성도(여, 50세)는 위장 통증을, 체체게 집사(여, 64세)는 심각한 알레르기성 기침을 치료받았다고 간증했다.

이 밖에도 필리핀의 셀리안 성도(여, 24세)는 기도받을 때, 2cm 정도의 유방 종양이 사라지는 권능을 체험하는 등 해외 곳곳에서 간증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로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며 함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 마태복음 5:3~10 -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안에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등 참되고 복된 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복은 무엇일까요?

1. 참된 복의 마지막 관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리와 선, 빛을 좇아 살아갈 때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한 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애매히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술도 마시고 거친 말과 행동을 예사롭게 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술도 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동료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함께 어울린다 해도 재미가 없으니 상대가 서운해하거나 듣기 거북한 말들을 하지요. 또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 야유회나 친목 모임에 가지 못하거나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으므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주님을 믿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여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핍박함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행함으로 핍박받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핍박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일 학생이 학업

에 힘쓰지 않거나 주부가 집안일은 등한시한 채 교회 일에만 열심을 내면서 자신이 주의 일을 함으로 핍박받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벧전 2:20).

예수님께서 “... 나와 밋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 10:29~30) 말씀하신 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2.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영원히 행복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의를 행함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둠까지도 발견해 버림으로 온유함과 화평함을 이루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통해 더 낮아지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죄악들을 벗어 버리며 성결을 이루는 만큼 핍박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장성하여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영육 간에 받아 나갈 뿐 아니라 의를 이룬 만큼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가 자격을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후 애통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악들을 벗어나감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마음의 청결을 이루는 등 계속 의를 좇아 행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래야 천국에서도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뵈올 수 있습니다.

진정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얼마큼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의 모습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처소와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요 14:2 ; 고전 15:41).

3.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큰 상

마태복음 5장 11~12절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핍박받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에 핍박을 막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의 기틀을 확립한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수행하기까지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고후 11:23~27).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까지 있었으니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행 23:12). 그는 어떠한 핍박에도 천국 소망이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했으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벧 2:17 ; 딤후 4:7~8).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천국에는 의의 면류관을 비롯하여 각종 면류관과 황금 보석집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를 위해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나 필요한 것을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채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여 주십니다. 주 안에서 고난을 이겨낸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며,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면서 점점 더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4.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를 위해 핍박받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계도 참되고 영원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범죄의 보응으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진실한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기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했

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을 때 그 은총을 함께 입었지요. 하물며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한 사람은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함께한 제자들을 향해 장차 받게 될 하늘나라의 상급을 알려 주심으로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핍박받을 때마다 장차 천

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은 물론 이 땅에서 주고자 예비하신 백배의 축복을 바라봄으로(막 10:29~30) 중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계셔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부지런히 팔복의 말씀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축제, 만민하게수련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에 매우 놀랐습니다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알렉산드르 아사노프 목사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새롭고 특별했지요. 심지어 찬양하는 모습도 저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성도님들의 행복한 모습과 마음 다해 주의 종들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모습은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또한 주의 종도 아닌 성도님들이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에 매우 놀랐고, 그것도 장시간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다니 사트리안토 목사



처음 참석한 만민하게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고, 모든 성도가 얼마나 열심히 모이고 행사에 참석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온 목사님들과도 만날 수 있었으며, 만민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이뤄가고 있음도 알 수 있었지요. 제가 만민중앙교회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열어주신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날씨와 최적의 기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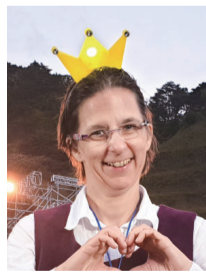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로버트 존슨 집사



수련회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씨와 최적의 기온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체육대회는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국제적인 행사였습니다. 마치 올림픽이 열리는 것처럼 28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치러진 즐겁고 행복한 세계적인 축제였습니다.

농아 성도들도 귀가 열려 잘 듣게 되었습니다

독일 뮌헨/ 레베카 발바라 블라트 성도



만민하게수련회는 각 나라에서 참석한 농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행복한 자리입니다. 잠자리 체험도 많고, 저희 농아 성도들의 닫힌 귀가 열리고 이전보다 더 밝히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지요. 계속 참석하고 싶습니다.

수련회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이와모토 요코 집사



저는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무지개와 잠자리, 시원한 바람, 성도님들의 사랑과 선의 향기... 지금 고백하면서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기도받은 뒤 제 시력도 이전보다 좋아져 행복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와 권능, 대단합니다

인도 델리/ 라비 어거스틴 집사



수련회 교육 시간에 증거된 말씀은 제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저는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믿음이 성장하고, 천국 소망도 더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난치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김창화 집사 (64세, 3대대 31교구)

“50년 동안 전혀 들리지 않던 오른쪽 귀가 들립니다”

저는 열서너 살 때 귀앓이를 하면서 오른쪽 귀에서 진물이 흘러나 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온전히 치료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청력이 점점 떨어지더니 결국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대화는 물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항상 왼쪽 귀로 들어야 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불편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던 2017년 8월 초, 조카의 전도로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지쳐 살다가 수련회에 갔는데, 한낮에 진행되는 체육대회임에도 날씨가 선선한 것을 체험하며 정말 놀랐지요. 뿐만 아니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이후 울산만민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당회장님을 통해 듣는 설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알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드리기 위해 힘쓰며, 제 오른쪽 귀를 하나님께 치료받아 잘 듣게 될 날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서울로 이사해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된 저는 일자를 알아보던 중 면접 날짜가 수련회 기간과 겹치게 돼 잠시 고민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풍성한 수련회에 가는 것으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수련회 첫날인 8월 5일 저녁, 교육 준비찬양 때부터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아 ‘올해는 응답을 받겠구나!’ 싶었지요. 은사집회 시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귀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기도받았습니다. 그 뒤 왼쪽 귀를 손으로 막고 오른쪽 귀가 들리는지 확인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재차 시험해 보아도 소리가 들렸지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간증하니 모두 자신의 일처럼 좋아하며 기뻐했습니다. 권능으로 치료해 주셔서 오랜 고통을 해결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미나 시스 성도 (46세, 인도 델리)

“안면신경 마비가 치료됐어요”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뿌자 자매로부터 만민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소개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했지요.

그러던 중 뿌자 자매가 ‘GCNTV HINDI’ 링크를 보내주어 유튜브를 통해 8월 5일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수련회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 때부터 눈이 따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은사집회 시 눈에 손을 얹고 기도받은 뒤에는 놀랍게도 눈을 자주 깜빡이던 증상이 나아지더니 작아졌던 눈도 원래 크기로 돌아왔지요. 할렐루야!

로 인해 늘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왼쪽 눈이 자주 감기는 데다 눈의 크기마저 점점 작아지는 것이었지요. 5년 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델리에 있는 여러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비싼 주사도 맞아보았지만 오히려 증상은 심해져만 갔지요.

YouTube 유튜브 통해 해외에서 기도받고 치료된 사례

에스메랄다 모레노 성도 (46세, 콜롬비아 보고타)

“척추디스크가 치료됐어요”



저는 약 1년 전부터 허리와 다리의 심한 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허리를 숙일 수조차

없었고,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지난 7월 초,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척추 두 군데가 디스크로 판명되었고, 의사는 제게 수술을 권유했지요. 하지만 저는 올해 ‘만민하게수련회’를 통해 기도 받고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수련회에 참석했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천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사산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2213-207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3430-3312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